

다니엘서 - 번호 백사십구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 신성과 인성의 연합

Jeff Pippenger

2024-03-21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표상된 역사를 고찰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 절 속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개신교 뿔의 역사를 표상하는 내적 역사선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두 막대기의 연합을 준거점으로 삼아, 셋째 천사가 도착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식별하고 있다. '교훈에 교훈'의 원칙에 따라, 요한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완결된다고 지적한 '하나님의 비밀'의 기별은 사도 바울에 의해 라오디게아에 특별히 보내어졌다. 에스겔과 요한과 바울의 증언은, 1888년에 존스와 왜거너의 기별 안에 표상되었던, 곧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비밀'과 일치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또 내 얼굴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씨름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정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1-3.

속죄의 사역, 곧 신성과 인성의 두 막대기를 결합하는 사역은 셋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 시작되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 두 막대기의 결합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기별을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처음 1856년에 도래했고 1888년에 다시 반복되었으며, 2001년 9월 11일에 그 완전한 성취를 보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제시하면서 성전을 이중적 성격으로 규정했는데, 그 비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쳐지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비밀을 머리와 몸으로 나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이시라. 이는 그가 범사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멀어져 원수가 되었던 너희도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 가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18-25.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니 만물에 있어 으뜸이 되셔야 하며, 그의 교회는 몸이다. 머리와 몸은 함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며,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드러난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가 몸 위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도 더 높은 능력(머리)이 더 낮은 능력(몸)을 다스려야 한다. 이 둘은 함께 하나의 존재를 이룬다. 또는 요한이 측량하려던 성전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들은 성소(인성, 몸)와 지성소(신성, 머리)를 나타낸다. 이 둘이 '한 막대기', 곧 한 몸으로 결합되는 방식은 '하나-됨'의 사역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일꾼이 되었노라.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비밀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방인 가운데 어찌한지를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수고하며, 그가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따라 힘써 싸우노라. 골로새서 1:25-29.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제시하는 십사만 사천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곧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인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그 비밀이 성취된다. 에스겔은 그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막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북왕국을, 다른 하나는 남왕국을 위한 것으로, 그 상징적 연결을 가리킨다. 그 연결은 숫자 "마흔여섯"으로 성전을 나타낸다. 숫자 "마흔여섯"의 상징적 연결을 나타내는 막대는 "이백이십"의 상징적 연결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백이십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징이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의 출판으로부터 1831년 밀러의 메시지의 최초 제시에 이르기까지는 이백이십 년이며, 이어 1833년에 그 메시지가 버몬트 텔레그래프에 출판되었다. 밀러의 메시지는 1798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을 때 성경에서 비롯된 지식의 증가를 정식화한 것이었다. 시작 연도인 1611년에는 신성한 문서가 출판되었고, 끝나는 연도인 1831년에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신성한 진리에 기초한 인간의 출판물이 있었다.

그 세 날짜는 220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째, 열셋째, 마지막 글자를 결합해 이루는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구조도 나타낸다. 처음에는 신적 공표가, 끝에는 인간적 공표가 있으며, 1798년은 지식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 증가가 그 지식을 거부하는 악인의 한 부류를 드러나게 하므로, 반역의 상징인 열세 번째 글자를 대표한다. 그 220년의 연결고리는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확립되었고, 셋째 천사의 운동이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1776년에 신적 문서인 독립 선언서가 공표되었고, 이백이십 년 후인 1996년에 인간적 문서인 The Time of the End 잡지가 발행되었다. 그 인간적 문서는 1989년 종말의 때에 산출된 지식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798년의 경우와 같이 독립 선언서가 대표하는 신적 기별에 대한 반역을 초래하였다. 1996년의 지식의 증가는, 임박한 일요일법 하에서 미국이 1776년에 선언했던 자유와 독립을 상실하게 될 미래를 규정하였다. 이는 이백이십이라는 수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한

둘째 증거를 제공하며, 그 둘째 증거는 '진리'라는 서명을 달고 제시되었고, 첫째 천사의 역사(처음 것)에서는 첫째 증거로, 셋째 천사의 역사(마지막 것)에서는 둘째 증거로 나타났다.

1776년은 또한,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땅의 짐승이 실제로 시작되기 이전의 준비 기간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그 준비 기간에 1776이라는 연대가 다시금 진리의 표징으로 식별되어 미국의 시작을 표시하였고, 1798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역사 한복판에서, 열세 식민지가 헌법을 비준한 1789년은 가운데 글자를 표시하였다. 이 세 날짜 각각은 미국의 "말함"을 나타낸다. 곧 1776년의 독립선언, 1789년의 헌법,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이다. 그 역사는 22년을 나타내는데, 이는 220의 십일조, 곧 십분의 일이므로 또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상징을 나타낸다.

그 표상은 양(신성)으로 시작해 용(인간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땅의 짐승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1776년은 신성을 표하는 독립선언으로 시작하고 외국인법과 선동법은 인간성을 대표하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땅의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의 그 22년 동안 양에서 용으로의 전환이 표상된다.

유다 남왕국에 대한 2,520년 심판의 시작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년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 유다에서의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은 기원전 677년에 시작되었고, 2,300년의 예언은 그로부터 220년 뒤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막대기는 46이라는 상징을 통해 북왕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220이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2,300년과도 연결된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이 섬기는 그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정의했다.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도 이 진리를 덧붙여 언급한다.

그리고 이의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16.

바울은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머리이시고, 육신은 몸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호세아처럼 결혼의 은유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 곧 그의 살과 그의 뼈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므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큼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30-32.

에스겔은 제37장에서, 말세의 언약, 곧 십사만 사천으로 식별되는 자들과의 갱신된 언약을 식별할 때,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잇는 비유를 제시한다. 그 두 막대기는, 구절 위에 구절의 방식으로 볼 때, 호세아와 바울의 혼인 은유를 포함한다. 그들이 서로 결합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두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한 민족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그 땅,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모든 범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를 지었던 모든 거처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22, 23.

에스겔이 말한 연합은 그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도 죄를 짓지도 않고,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오직 한 왕만 있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10월 22일에 언약의 사자가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고 갑자기 성전에 오셨다. 그는 나라를 받으러 오셨는데, 베드로에 따르면 그 백성은 그때 제사장과 왕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날에 신랑도 혼인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바울과 호세아가 지적인 신비로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요한은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지칭한 그 신비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날들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에,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7.

일곱째 천사는 셋째 화이며,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하였다. 일곱째 천사는 1844년의 역사 속에서 셋째 천사가 도착했을 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으나, 1863년의 반역이 그 일을 마치는 것을 방해하였다. 셋째 천사가 도착하였고 일곱째 나팔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 9월 11일이었으며, 이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며, 이것이 십사만 사천을 산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치와 군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이 죽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뼈들은 2001년 9월 11일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을 상징하며,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자신의 복음을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전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또 내 얼굴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씨름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정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1-3.

이것은 또한 화이트 자매가 에스겔의 죽은 마른 뼈들과 관련짓는 묘사이다.

그러나 이 마른 뼈들의 비유는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들도 골짜기의 해골들과 같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과 몸의 골격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없다. 그러나 그 비유가 마른 뼈들을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만 서로 이어지게 두지는 않는다. 팔다리와 용모의 균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몸들이 똑바로 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이 그 몸들을 살려야 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며,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향력이다. 주께서 마른 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셔야 그들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생명 주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하며, 그래야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활동할 수 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영적 생명은 상실된다. 영적 생명이 없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명부에는 올라 있지만, 어린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에 소속될 수는 있으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는 않다. 그들은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지런하여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영혼을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난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유일한 보장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품성을 본받아 그분의 영으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별거벗은 자들이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죽은 자들이 종종 산 자로 간주된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일컫는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없다.

"이 부류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잘 상징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1월 17일.

라오디게아 기별은 1856년에 처음 재림운동에 제시되었으며, 그 해는 주께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관한 전진하는 빛을 열어 보이신 바로 그 해였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적인 기별과 예언에 관한 외적인 기별로 이루어진 1856년의 기별은 1863년에 거절되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신비에 대한 라오디게아 기별은 1888년에 존스와 왜거너 장로들에 의해 반복되었고, 그 기별은 화이트 자매에 의해서도 라오디게아를 위한 기별로 확인되었다.

줄에 줄을 더하며, 에스겔서 삼십칠 장은 에스겔이 영적으로 2001년 9월 11일로 옮겨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를 목도한다. 그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예언적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첫째 것은 결합을 이루게 하지만, 그 몸들은 여전히 죽어 있다. 둘째 예언은 '네 바람'의 기별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요구한다. 네 바람의 기별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가리키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기별이다. 화이트 여사는 그 네 바람을 '성난 말'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려 한다. 이슬람의 성난 말은 2001년 9월 11일에 그랬던 것처럼 속박을 벗어나 그 행로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려 하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 때에 다시금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시체들을 일으켜, 제 발로 서 있는 하나로 통합된 군대로 만든다. 그 통합된 군대는 일곱째 천사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일어서게 되는데, 이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들에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맺는 혼인의 비밀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때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져 한 나라가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유다의 남왕국이며, 그들의 상호적인 흠어짐 기간 2,520년이 끝날 때 하나의 나라로 결합된다. 그 상호적인 종결은 영적 성전을 이루며, 이는 상호 흠어짐 시기의 시작과 끝에 각각 있는 46년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아갔더니,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20.'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사야 8:20. '율법과 증거로 돌아가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본문이 제시되어 있다. 곧 성공을 위한 두 조건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의 영은 그의 백성을 모든 일에서 인도하는 지혜의 두 근원이다. 신명기 4:6. '이것이 열국의 눈에 너희의 지혜와 명철이 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이 큰 민족은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영은 교회를 인도하고 권면하는 일에 긴밀히 협력하며, 교회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를 인정할 때마다 예언의 영이 진리의 길로 교회를 인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왔다.

요한계시록 12:17. "용은 그 여자에게 격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 예언은 남은 교회가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언의 은사를 지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예언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구별해 왔으며, 그 시험은 대개 현재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주어진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는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신 말씀은 의심하며 제쳐 두어 그 말씀이 지닌 힘과 권능이 허비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는 것 외에는 달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때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온전함과 능력으로 교회에 드러내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등장할 때, 예언의 은사도 즉시 회복되었다. 이 은사는 이 기별의 전개와 추진에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해 왔다.

"성경 해석과 사역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가 일어나 기별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사역에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마다, 예언의 영은 언제나 그 상황에 빛을 비추어 왔다. 그것은 항상 신자 공동체에 사상의 일치와 행동의 조화를 가져왔다. 기별이 전개되고 사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영의 빛을 굳게 붙들고 선 이들이 승리하였고 그들의 손에서 사역이 번성하였다." 로마린다 메시지, 34.

